

기숙사 합리적 운영 절실

수원캠퍼스 '애지원'을 점검한다

수원캠퍼스학생들은 서울과 지방의 교통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학교주변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른 주거 시설에 비해 경비가 적게 드는 '애지원'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캠퍼스 애지원 기숙사의 선별방식과 운영문제들을 고찰해보자 한다.

I. 기숙사 수용인원과 선별방식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때쯤이면 기숙사에 들어가기위한 신청서가 각 학과 사무실마다 쌓이게 된다. 각 학과마다 예정된 인원은 10여명 남짓이지만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사람은 항상 웃돌기 때문이다.

수원캠퍼스에는 남학생수소인 송관, 여학생수소인 백관 그리고 체육특기생 합숙소성격의 국선관 등 3동으로 세워진 '애지원' 기숙사가 있다. 현재 애지원은 총 3백 7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지만 8천여명의 학생수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불편한 교통여건과 대학촌형성 부제로 인한자취, 하숙집의 부족은 대다수 지방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앞 서천리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신갈과 심지어 수원에도 자취,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낳게하고 있다.

애지원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양한 문화생활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애지원의 학생들은 외딴곳(?)에 간헐적 무료하게 휴일을 보내다가 일주일의 끝을 수월하게 마무리짓고 오고 가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애지원은 교통편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지원의 중요성이 한층 더욱 커지는 이유는 식당을 개방하는 데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주변 서천리의 자취생들이 번거로움을 피해 식사를 하러 오기 때문이다. 학교주변 학생들에게 당면 학교와 함께 유익(?)하게 사람을 만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한편은 빈약한 문화공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 주변 자취 하숙생들의 문화생활의 자라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단과대학 배정은 각 단과 학생수 비율에 의해서 실시된다. 외국어대 39명, 사회대 54명, 자연대 50명, 공대1백2명, 산업대 42명, 체대 35명등으로 배정되어 있다.

또한, 각 단과별, 인원수가 배

정되면 다시 각 과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 과학과장이 학생들을 선별, 선발하고 있다. 이때 각 과에서 인원을 선별하는 기준은 성적과 통학난이도에 따른 거주지와 거리이다. 성적은 1백점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가 20점, 학업성적이 80점을 만점으로 집이 원거리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청자중 학점이 우수한 학생과 영세민자녀에게는 우선 선별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1학년이 전체선발인원의 40%, 2학년은 30%, 3학년은 20%, 4학년이 10%가 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러한 규정들이 각과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모학과의 한학생은 "각과에서 입사원서를 접수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다"면서 입사과정의 완벽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입사했던 학생이 이 사실이 밝혀져 퇴소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하나는 각 학년별로 예정된 인원비율도 지켜지지 못하는 점이다. 애지원 운영과의 직원은 "1학년 학생들은 학교의 상황과 주변의 자취, 하숙등의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이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기회를 1학년에게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각단과에서 선별하는 인원을 살펴보면 학년별 구성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금년 1학기에는 애지원 자체 내에서 신입생들을 선별하였다.

애지원에서 직접 신입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자체심의를 의 해 1백33명의 학생을 선발 하였다고 한다.

결국, 기숙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넘치는데 비하여 정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 대해 某학과는 해택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한학기동안 입사했던 학생은 다음 학기에 는 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체육특기소속인 국선관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담당직원은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애지원 자치회의 회장인 이가우(행정·4)군은 "국선관이 이 분리되어 나가게 되면 현재의 국선관은 일반학생들이 사용하게 될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선관이 있는 한 학생은 "여태껏 일주일에 이틀정도만 기숙사에서 숙식하고 또한 새벽에 들어가는 등 자율분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와 같이 지방캠퍼스에 위치해 있는 기숙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그 중요성과 함께 더

국공적으로는 기숙사의 정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선관의 독립 건립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미루어두고서라도 현재 선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정성과 함께 형식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 자치회 위상과 규율

이상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인·원수용의 부족, 선별방식의 자의성으로 기숙사 자체의 규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애지원 기숙사를 학생들은 전국에서 제일 자유롭고 행복한 기숙사라고들 한다.

기숙사에 있는 한 학생은 "여태껏 일주일에 이틀정도만 기숙사에서 숙식하고 또한 새벽에 들어가는 등 자율분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기숙사는 각 동의 조교

자치회의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숙사자치회는 회장 밑에 각 동의 각 1명씩 3명의 동장으로 집행부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활동은 1년에 한번씩 가지는 오픈하우스 행사, T셔츠 구입, 시험기간중 학생들에게의 간식지급 등 연례적으로 도식적인 행사를만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자치회는 또한 학생들이 입사할시 입사비와 함께 5천원씩의 회비를 걷고 있으나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자치회의 쓰임새나 활동등에 거의 무관심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숙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숙사내 복지시설의 개선을 진행해야 할것이며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학생들은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규율을 확립하여 규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더불어 자치회의 위상정립이 시급히 요청되어진다.

몇년전까지만해도 자치회장을 전 자치회장이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기숙사 학생들과 권리를 잃고 기구로서 인식이 되었었으나 작년부터 기숙사 학생들의 선거로 뽑히는 대중성을 기했다.

이에따라 자치회는 학생들과 더불어 가지는 행사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예

"한반도 핵기지화 위협"

전UN 사무차장 보단·레반도프스키를 만나



▲26년생(65세)
▲46~48년 피츠버그 시카고 영사관 근무
▲60~66년 유엔주재 대표
▲66~67년 외무부 기획연구실장
▲72~82년 유엔 사무차장
▲82년 유엔 사무총장 자문위원
▲현재 바르샤바 대통령 자문위원, 평화복지대학원 명예원장



의 문제를 인식,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협력자세가 없는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폴란드인이라 알고있는데

자국 민주화를 보는 견해는? ▲1917년 공산주의는 소련에서 탄생해 폴란드에 이식된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폴란드에 맞지 않았고 폴란드 국민은 그것을 거부했다. 현재 동구유럽은 새로운 이념을 찾고 있다. 이는 '제3민주혁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체제의 장점을 취해 평화정치·자유·경제정의의 이 세가지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모든 핵무기는 제거되어야 한다. 핵의 사용은 인류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핵이 개인이나 체제 유지에 사용된다면 적어도 태평양지역은 망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북한도 UN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해야 한다. 핵이 평화적으로만 사용된다면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북방 교류에 대한 견해는

▲가장 좋은 외교는 강대국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강대국의 싸움사이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외교적 환경에 처해 있다. 편중되지 않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도 지양되어야 한다.

—남한의 UN 단독가입에 대해서는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수정해 동시에 UN에 가입했으면 한다. 앞으로 통일이 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과거 동·서독의 좋은 교훈이 있다. 그들은 현재 통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잖나.

—한국에서의 계획은

▲한국의 핵발전에서 'UN과 국제협력'을 강의하고 있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4번째 한국방문으로 친하게 지내는 인사들과 만나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공산군 사람인데도 북한에 가보지 못했다. 남북한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林)

핵사용인 인류의 자살행위

중동 평화위해 인권문제 선행 시급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가장 바람직

세계정치의 해빙무드와는 역으로 한반도에서는 남측의 연내 UN 단독가입 발표와 북측의 핵안정협정기구 가입불가 입장 고수로 인해 냉전상태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다육이 남측은 지난주 19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제2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UN 단독가입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북측은 이에대응 중국과의 우호적 입장을 취하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UN의 권위자로 알려진 본교 평화복지대학원의 보단·레반도프스키 명예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상황과 그의 평화에 대한 소견을 들어 본다.

—평화복지대학원 명예원장으로 부임한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대학원에 감사드립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국내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인만큼 국제적 이슈에 맞춰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나는 45년동안 UN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UN정신을 평화복지대학원 취지에 접목시켜 가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강대국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침략자 자신이 처참하게 보복당한다는 것이고 둘째, 세계 초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결론 이후 전후 처리과정을 어떻게 보는지

▲중동에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예로써 쿠르드 민족문제, 이스라엘의 인권문제, 팔레스타인의 국토문제, 중동 석유부호들의 부패문제등이다. 특히 걸프전쟁을 계기로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그곳

이름도용·친분에 의한 선별 탈피해야

수용 인원 부족, '국선관'건립이 해결의 열쇠

옥 커지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교통난과 주거난으로 인해 서울거주의 학생들까지 학교주변에 거주하는 이유로 지방학생들마저도 학교주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기숙사에 입사하는 방법을 알지못해 신청을 하지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기숙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숙집도 구하지 못하는 해프닝을 겪은 학생도 등장하고 있다.

들이 매일 오후 11시에 점호를 하였으나 학생들의 요청으로 폐지한바 있다.

물론 사관학교와 같은 엄격한 규율은 필요하겠으나 기숙사에 기거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앞에서 밝힌것과 같이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위해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숙사

산공개등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자치회의 위상정립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은 1학기마다 선별을 함에따라 자치회의 사업 또한 1학기라는 단기적인 사업을 해나갈수 밖에 없다. 따라서 1학기마다 바뀌는 집행부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송보영 기자)

절차상 문제로 완공 지연될 수 없는 도서관

▼수원캠퍼스도 이제는 11살이라는 나이를 맞게 되었다. 최근에는 자연과학관, 학생회관의 완공으로 차츰 대학캠퍼스다운 면모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대학캠퍼스 조성은 단순히 몇개의 건물이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학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지난 몇년간 각 단과대 건물 및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영역으로서 학생회관의 건립은 수원캠퍼스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수원캠퍼스 개교와 더불어 진행된 '마스터플랜'은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면서 최종의 목표를 향하여

진행해 가고 있다.

▼마스터 플랜속에 나타난 수원캠퍼스는 현재와 비교하면 거의 황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1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속에 학생들이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캠퍼스 조성에 따른 건설상황이 기대치 이하의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중 대학내 가장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도서관의 건설 현황은 안타깝게움을 자울 수 없다. 지난해까지 끝조공사를 끝낸 도서관은 내부공사등 나머지 공정의 진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내부설계도면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입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공사진행으로 볼때 92년 완공예정이었던 당초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 도서관은 어떠

한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완공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보아서도 시급히 공사가 끝나야 한다.

▼지금도 사회과학관 앞에는 도서관 조감도가 서있다. 중앙대의 단일도서관 건물이라는 말은 잊혀진지 오래이다. 지금 학생들의 바람은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그마한 기쁨을 느끼자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된 기일안에 도서관이 완공되어서 중앙최대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궁지를 갖고있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도서관 주변의 도로와 조경공사도 마무리 되어 안정된 학원의 모습을 갖추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장 학생 선발시험 안내

- 아래와 같이 대학원 정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1991.5.4(토)
 2. 장소: 본관(추후 공고)
 3. 선발방법
가. 시험과목: 영어(주·객관식을 혼용출제하며, 단 순번역문제 지양)
나. 시험시간: 100분
다. 시험 성적을 기초로 하여 사정위원회에서 계열별로 선발
 4. 선발대상: 대학원 석사과정 1~4기 재학생(장학조교 및 재학생도 응시할 수 있음)
 5. 선발인원: 20명 내외(계열별로 약간감)
 6. 선발장 대우: 우수장학생 칭호를 수여하며 소정의 장학금(500,000원 내외)지급
 7. 접수 및 제출서류: 소정양식에 의거 1991.4.27(토)까지 대학원 교무과에 신청(수험은 수원 대학원 교무과로 신청: 1호관 5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무과(서울 0122, 0123, 수원 2135)로 문의바람.

대 학 원 교 무 과

어학강좌안내

본교 언어교육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어학강좌를 실시합니다.

1. 개설과목 및 모집인원
가. 영어회화(초급): 아침반, 저녁반 각 15명
나. 영어회화(중급): 아침반, 저녁반 각 15명
다. 일본어 특강(초급): 아침반 20명
라. 중국어 특강(초급): 아침반 20명
마. 러시아어 특강(초급): 아침반 20명
2. 강의시간 및 시간
가. 기간: 1991.5.6~6.28(8주)
나. 시간: 아침반(월, 수, 금) 07:30~09:00(90분)
저녁반(월, 수, 금) 18:00~19:30(90분)
3. 수강료: 과목당: 100,000원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1991.4.30 오후5시까지 선착순 마감
나. 접수처: 사정교육원 언어교육연구원 사무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연구원(전화 961-0080, 0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학생의료공제회이용안내

1. 학생의료공제목적: 본교 학생이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고액의 진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불행은 방지하기위해 직결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며 재학생 학생의 건강증진을 기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 공제회원: 본교 학생으로서 공제회비를 납부한자.
3. 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본교 보건진료소(제1차 진료기관) 경희의료원(치과, 한방포함)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단 4월1일부터 실시예정)
4. 요양급여기간의 제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학기당 통산 90일
5. 진료절차: 학생제 담당자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아 교내보건진료소(음악대학입구)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건소의 진료범위를 넘는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는 경희의료원으로 이송함.
6. 공제비 신청절차:
가. 이증가입회원(부모나 본인의 기존의료보험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받은 회원)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학생처내)에 제출하면 발표와 같이 공제비를 지급함.
나. 일반 회원(공제회에서 진료카드를 발부받은 회원)은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가입자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됨.
다. 공제회원이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지 못할정도로 응급하여 타진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공제비를 지급함.
* 진료비 영수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복학생은 등록학인을 받아 3월 31일까지 가입하기 바람.(회비 7,000원)
* 공제회원이 납입한 가입비 및 공제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될 수 없다.(의료공제회 정관, 제39조)

금 여 기 준

일반회원 진료시		이증가입회원 진료시	
공제회비	본인부담금	공제회비	본인부담금
교내보건진료소	3,000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제회비
비율: 부표	비율: 부표	본인부담금	공제회비
상: 30%	상: 30%	본인부담금	공제회비
경희의료원(치과, 한방 포함)	55%	본인부담금	공제회비
(단 진료료 본인 부담)	45%	본인부담금	공제회비
경희의료원(치과, 한방 포함)	20%	본인부담금	공제회비
경희의료원(치과, 한방 포함)	20%	본인부담금	공제회비

이중 가입회원의 본인부담금이란 총진료비 중 의료보험에 의한 본인부담금 중 공제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공제회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학생처 의료세회 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961-0045~0048)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91대학 장학생 모집안내

(학군·학사사관)

1. 모집인원: 1학년(○○명), 2학년(○○명)
2. 지원자격: 4년제대학·1학년(88.11~75.11 출생자) 2학년(88.11~74.1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1.4.1~5.20(학군단 본부)
나)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서)
·지원서(사정첨부) 및 서약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정첨부 2부 ·(단 신청료는 본인 부담)
·제정보증서, 납세증, 입학증명서 2부
·사진(4×5cm) 3매
4. 선발절차
가)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나) 2차: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91.8.26
6. 특전
가)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나)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다) 희망 및 전공 학교로 방과후 보직 활용
라)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처: 학군단 본부(T. 962-9004, 교내-0087)

제108 학생군사교육단